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8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13일(음력 3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6·3지방선거 '불교 정책 제안'

전통사찰 규제, 지자체 의지 '관건'
문화유산·사찰림 보존, 지역 자산
반복되는 종교편향…공정성 확보

여수령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불교계가 제시해 온 정책 과제들도 지자체장 후보들이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전승, 사찰림 보호, 종교편향 예방 등은 종교 정책을 넘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지목 현실화

무엇보다 전통사찰을 둘러싼 행정 규제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현재 많은 사찰이 실제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 등으로 묶여 있어, 노후 전각을 개보수할 때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해석과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다. 최근 남양주시가 협의체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목 현실화와 건축물 합법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후보들은 △전통사찰 전담 협의기구 설치 △지목 현실화 및 건축물 양성화 절차 표준화 △통합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보전금 제도 현실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공공 서비스 부담은 오롯이 사찰 몫으로 남겨졌다. 5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현안 논의 자리에서 통도사 측은 "연간 방문객이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교통 체증 유발 등을 고려해 보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방문객 규모를 반영한 보전금 산정 체계 개편 △사찰 인근 공공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화유산 보존 예산 확충

불교 문화유산 보존 역시 지방행정의 핵심 책무다. 최근 문화유산 보수 예산 축소로 인해 국보·보물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측은 "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이 제대로 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도 4월 29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 전승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의 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공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비 매칭을 통한 보수정비 예산 증액 △비지정 문화유산 지원 조례 제정 등 보다 촘촘한 행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맞춤형 소방 · 방재 대책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병해충으로부터 사찰과 사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또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5만 헥타르에 달하고, 국립공원 내 사찰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7.4%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사찰 방재 시스템 고도화 △병해충 방제 및 산림 관리 예산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6면에 계속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식 직후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 '가비'를 선두로 탑돌이가 진행되는 모습.

오계 받고 '가비 스님' 된 로봇

조계종, 첫 로봇 수계법회…휴머노이드 4대 운용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금은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계를 받고 스님이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6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오계를 받은 로봇은 1대로 인간의 형상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날 로봇은 승복과 가사를 수한 모습으로 합장하고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했으며 연비와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법명은 '가비'가 내려졌다. 휴머노이드 스님 로봇은 가비 이외에도 '석자', '모희', '니사'의 법명을 받게 되는 총 4대가 운용된다. 이들 로봇은 오는 5월 16일 저녁 종로 연등행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전계대화상으로 증참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유정 무정에 불성이 있다면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등회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 스님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이들 로봇 스님들이 진실한 불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로봇 함께하는 연등행렬로 AI시대 선도"

진우 스님, 간담회서…혜안 스님 등 행렬 동참 '주목'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5월을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수행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조계종이 올해 연등행렬을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함께하며 AI시대와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음 평안의 달' 기자간담회를 열어 봉축 일정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인들의 마음은 매우 지쳐 있다"며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부족하며, 관계는 넓어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음 평안의 달'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봉축 기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불자들에게는 신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16~17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가 서울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연등회에서는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대동한마당,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계천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등에서는 전통등 전시도 열려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5월 16일 오후 7시 흥인지문에서 종각과 조계사로 이어지는 연등행렬에는 수만 개의 행렬등과 200여 점의 장엄등이 서울 도심을 밝힌다. 올해는 AI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휴머노이드 로봇 4대와 자율주행 로봇 '뉴비' '혜안 스님' 등이 봉행위원단과 함께 행렬에 참여해 주목된다. 또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며 북한 문헌등을 재현했으며, 북향민(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직접 문헌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한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면서도 "불교는 AI와 첨단기술을 참다운 인간과 불자를 만들어가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를 전통에만 머무는 고리타분한 종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사실 불교만큼 첨단적인 사유와 깊이를 지닌 가르침도 드물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첨단적인 방식으로 불교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행렬 이후 종로 공평사거리 특설무대에서는 연희단 공연과 EDM 무대가 진행된다. 연등행렬을 비롯한 주요 행사는 연등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마음 평안의 달'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을 끝으로 회향한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2면에 계속

김내영 기자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